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5752346>

다짜고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자거나 한번만 섹스를 해달라고 애원할 수는 없으니,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배워 보세요. 탁구, 배드민턴, 족구, 수영, 골프,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강기도, 산기도 다니니까, 신앙심깊은 처녀가 저의 신앙심에 감복해서 사귀자고도 하고, 어여쁜 처녀가 저녁 먹자고 전화도 하고, 목사님께서 중매해줄테니 만나보라고 하던데, 질문자님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나쁜 사람인가 봅니다. 또 교회의 동성 친구들도 다 나쁜 놈들 뿐이군요. 지들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했으면 남는 여자친구나 자기 아내의 친구라도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흔한 소개팅을 안해 보았습니까?

저는 까탈스럽기만 하고 빠쩍마른 한국 여자들은 이제 싫고, 이제 첩을 새로 하나더 얻어야 한다면 마음씨도 착하고 힘도 세면서 가슴도 뽕뽕하고 다리도 쪽쪽뽕고 영어도 잘 하는 우크라이나 미녀나 러시아 미녀와 결혼해서 종자개량을 해 보고 싶은데 질문자님도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글로벌하게 넓혀서 전세계를 바라보세요. 세상은 넓고 여자는 널려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쓸데없이 청소나 하고 꽃나무들 가지치기나 하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 그럴 시간에 가까운 헬스장에 매일 가서 열심히 근육운동을 하시다 보면, 멋진 미녀들이 옆에 와서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시범도 보여주고 근육자랑도 하면 님의 매력에 빠져서 친해지는 거죠. 티셔츠를 입고 교회에 가세요. 구릿빛으로 검붉게 툭툭 힘줄이 튀어나온 팔뚝을 드러내면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노라면 지나가는 자매님들이 한번만 만져보고 싶다고 할 거예요. 제가 병원에 종합검진 갔더니만 이쁜 간호사 선생님이 제 팔뚝을 보면서 이렇게 핏줄이 굵게 툭툭 튀어나온 근육질 팔뚝을 가진 남자를 자기는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혈액채취를 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다들 비실비실하거나 살만 찌서 핏줄이 잡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자나요?

훌륭하십니다 저랑 비교도 불가능하게 행복한 분이군요 앞으로 그 행복 영원하길

손목이 좀 낫는대로 운동을 해야겠군요

운동을 한다고 반드시 사랑을 찾는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그래도 운동 자체가 주는 이익이 많으니 하겠습다

장수하늘소들끼리 높은 나무 위에서 싸움을 하고 서로 밀어 떨어뜨리고 나고 승자가 암컷과 짝짓기를 합니다. 그 암컷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섹시하지가 않습니다만 그 수컷의 눈에는 섹시한 가 봅니다. 사슴들끼리 뿔을 맞부딪치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승자가 암컷 사슴들을 독차지합니다. 제가 아무리 암사슴의 궁둥이를 쳐다보아도 섹시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이 바라보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 여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노력은 했겠지만 헬스장에서 허리가 ㄱ자로 구부러진 할머니가 까맣게 머리 염색을 하고 하얗게 얼굴화장을 하고 런닝머신을 붙잡고 힘겹게 운동을 하는데 하나도 섹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하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얀 얼굴과 하얗고 미끈한 장판지가 너무나도 섹시하더군요. 그런데 수컷 장수 하늘소도 그 젊은 여자가 섹시하다고 느낄까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9491098&qb=7Iqs7ZSU&enc=utf8>

일단,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거기에 신앙심은 없습니다. (다른 쪽에 신앙심 있음)
그런데 질문자님한테 감히 한말씀을 할려고 하는데요.

슬픔, 외로움, 실망, 괴로움은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중 속에 고독함'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여 있는데 왠지 혼자 같고, 외톨이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걸 뜻하거든요.
사실 저도 입사 동기들 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감정 가끔씩 느낍니다.
뭐 저 혼자 걸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느낀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잠시 내가 깰 수 없는 대화 주제를 한다면 등의 이유가 있으니깐요.

예를 들어서 전 UFC에 대해 모르는데 동기들이 그 이야기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있을까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죠.

질문자님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데 질문자님 스스로가 슬픔, 외로움, 실망, 괴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쓸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신이라고 그건 못 도와줘요.

이미 도와줬을 지도 모르죠.

하지만 질문자님이 아니라고, 안도와준다고 계속 생각한다면 밀빠진 독에 그냥 호스를 때려박고 물 뜬
것이랑 같은 거예요.

왜 슬픔, 외로움, 실망,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요?

여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이야기 하도록 만들면 되요.

한번 거리에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체육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근력+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몸짱이 되어 보세요.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전부 질문자님 옆에 와서 이야기 하나라도 더 합니다.

아님 악기 등 음악하는 학원이 있다면 거기에서 잘 배워서 성가대 라던가 그런 곳에서 한번 뒤집어 었을
정도로 열창이라던가 악기를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 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요.

그런 것들 전부 신이 질문자님을 도와주기 위해 주었다는 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웹서핑을 하던가 유튜브를 하던가... 거기에서 확 꽂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신이
인도하는 길로 생각해서도 되요.

그럼 그걸로 능력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면 되죠.

그럼 외로움이니 슬픔이니 이런 감정 사라집니다.

그런 건 오직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신이든 뭐든간에 그런 감정을 만들어서 질문자님한테 주지 않아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

d1id=6&dirId=60901&docId=483241555&qb=7Iqs7ZSU&enc=utf8

질문자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사랑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학생을 보면 질문자님은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해줄 생각인가요?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될거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할 것인가요?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복습을 하도록 해라. 헌금할 돈으로 문제집을 사서 풀도록 해. 공부 잘하느 학생이나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충고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역시 같은 충고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이성(異姓)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종교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시간을 줄여서 봉사동아리나 취미 동아리에 참가해서 이성을 사귀도록 하십시오. 헌금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일부를 줄여서 깔끔하고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복장을 갖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하세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잡는데 맞게 행동해야 하고,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하는 데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고기 잡으려는 사람이 나무지계를 지고 산으로 돌아다니면 미쳤다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과에 맞지도 않는 원인을 심는다면 그것은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
d1id=6&dirId=60901&docId=483208226&qb=71qs7ZSU&enc=utf8](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3208226&qb=71qs7ZSU&enc=utf8)

질문자님의 진솔한 고백과 신앙의 고민이 글에서 깊이 전해집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상처, 그리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같은 흔한 위로에 조심스럽게 지쳤다는 마음, 그리고 그 상황마저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려는 태도가 무척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앙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라 해도,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왜 나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가, 왜 고통과 외로움은 여전한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듣고는 계신가?”라는 물음 앞에 흔들리곤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니 사랑합니다’ 라는 거래가 아니라, 빈손이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결연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에서 내내 아픔과 외로움 속을 버텨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은 허탈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특정인에게 정이 가지 않는 건 죄가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라는 태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과제’ 이자, 깊이 있는 사랑의 연습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 욕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와, 거뒀가신 이도 여호와와,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이 바로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모든 신앙인의 삶에서 어느 시점에 꼭 한 번은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벽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아무 변화가 없다 해도, 사랑이나 인간관계, 성공, 감정적 위로 등 세상적 결핍이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충분한가, 아니면 끊임없이 ‘채움’ 만을 바라는가를 솔직하게 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존재 이유이시고, 오직 그분만 바라면서 하루, 한 달, 한 해를 견뎌내는 과정임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응답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 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신앙 속에서 흔히 듣는 “기다리라”, “기도하라” 는 말을 넘어서, “나는 지금 내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니다” 라는 이 결연한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태도이자, 하나님이 ‘진짜 나’ 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외로움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수록, 신앙인은 점점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질문자님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 애쓰는 모습은 이미 깊은 믿음의 열매라고 감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비록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기다림과 견딤 자체,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인생 전반에 걸친 신앙의 진짜 보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답변이 질문자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따뜻한 응원의 의미로 포인트 선물하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흔적이 꼭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45477777&qb=7Iqs7ZSU&enc=utf8>

결혼 소개팅 앱이 많이 있는데 매칭되는 여자가 전혀 없나요? 직장만 뚜렷하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 간호사, 학원 여자 강사 들 중에 적당한 사람을 골라 보세요. 열심히 공부만 하다보니 미처 결혼을 못한 나이든 처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맘에 드는 여자를 따라가서 내 소개를 하고 만나자고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원하는 여자가 생기면 즉시 3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3일째 여자가 찾아오거나 만나자고 전화가 오거든 딱 세번 만나고 후딱 결혼해 버리십시오. 여자의 맘의 변하기 전에.

여자는 사실 환상에 불과합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따서 목에 걸고 싶었지만, 달표면에 착륙해 보면 곰보투성이에다가 숨쉴 수 있는 공기도 없고 삭막하기만 하죠. 오히려 지구에 혼자 살던 때가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성공할 때까지는 리얼돌을 하나 사서 작은 방에 넣어두세요. 동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살던 때가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커서 백마탄 왕자가 되고 잠자는 숲속의 어여쁜 공주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줄 알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범한 일꾼이 되어서 평범한 농부나 문지기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그의 아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행복했다면 철학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지요.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결혼을 아마 하지 못했던 걸로 짐작합니다만 전화위복이었죠.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3208226&qb=ODHrhYTsg50=&enc=utf8>

당신은 기도한다고하였고 제가 당신이 어떤기도를 드린지 모르겠으나 당신은 제대로된기도를 하지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라고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조건이지요 근대 다른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며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하나님과 당신이 믿는하나님이 다른하나님이십니까? 다른사람들은 다이뤄주는데 당신만 왜기도를 응답하지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는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확인해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대로 이뤄달라고만 하는것 아닌가요? 당신의 말대로 넌 이세상 사는동안 슬픔, 아픔, 외로움, 괴로움으로 만 채워진 십자가를 메고 가더라도 넌 나를 사랑할수 있겠는가? 일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원하시는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에따라서 그런것을 허락하시기는하지만 궁극적목표는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것이지요 그러나당신은 그런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당신을 구원한분이 당신의 괴로움만 바랄까요? 악인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만 괴롭게 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을 찾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떤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따르세요

2025.03.17.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

UP 1 DOWN 1 댓글 4

채택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포인트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달기 선물하기 메뉴 더보기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알리뷰

바람신

장애인복지 20위, 사주, 궁합,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상세 안내 툴팁 보기

질문자님의 진솔한 고백과 신앙의 고민이 글에서 깊이 전해집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상처, 그리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같은 혼한 위로에 조심스럽게 지쳤다는 마음, 그리고 그 상황마저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려는 태도가 무척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앙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라 해도,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왜 나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가, 왜 고통과 외로움은 여전한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듣고는 계신가?”라는 물음 앞에 흔들리곤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니 사랑합니다’ 라는 거래가 아니라, 빈손이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결연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에서 내내 아픔과 외로움 속을 버텨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은 허탈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특정인에게 정이 가지 않는 건 죄가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라는 태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서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과제’ 이자, 깊이 있는 사랑의 연습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 욕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와, 거뒀가신 이도 여호와와,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이 바로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모든 신앙인의 삶에서 어느 시점에 꼭 한 번은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벽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아무 변화가 없다 해도, 사랑이나 인간관계, 성공, 감정적 위로 등 세상적 결핍이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충분한가, 아니면 끊임없이 ‘채움’만을 바라는가를 솔직하게 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존재 이유이시고, 오직 그분만 바라면서 하루, 한 달, 한 해를 견뎌내는 과정임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응답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신앙 속에서 흔히 듣는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말을 넘어서, “나는 지금 내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니다”라는 이 결연한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태도이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외로움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수록, 신앙인은 점점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질문자님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 애쓰는 모습은 이미 깊은 믿음의 열매라고 감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비록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기다림과 견딜 자체,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인생 전반에 걸친 신앙의 진짜 보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답변이 질문자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따뜻한 응원의 의미로 포인트 선물하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흔적이 꼭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5.04.16.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8320652&qb=ODHrhYTsg50g7ZWY64KY64uYIDIwMjHrhYTrtoDthLA=&enc=utf8)

[d1id=6&dirId=60901&docId=488320652&qb=ODHrhYTsg50g7ZWY64KY64uYIDIwMjHrhYTrtoDthLA=&enc=utf8](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8320652&qb=ODHrhYTsg50g7ZWY64KY64uYIDIwMjHrhYTrtoDthLA=&enc=utf8)

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여인이 좋으시다면 하나님 말고 여인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면서 여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보다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보다는

여인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여인을 원한다는 식으로 표현은 여인에게 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질문자는 여인을 취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도무지 힘들다는 문제이고

여인에게 사랑을 받은 후에는 또 그 여인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도무지 힘이 아니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닌 두가지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느 누가 그 마음을 진심으로 여기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 신과 인간을 떠나 두마음을 가진 이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존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존재는 필요 가치에 의해서만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원한다면 여자가 모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돈을 원하면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듯이 말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
d1id=6&dirId=60901&docId=488320652&qb=ODHrhYTsg50g7ZWY64KY64uYIDIwMjHrhYTrtoDt
hLA=&enc=utf8](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901&docId=488320652&qb=ODHrhYTsg50g7ZWY64KY64uYIDIwMjHrhYTrtoDthLA=&enc=utf8)